

수행자는 세상의 행복 눈 앞에 펼쳐주는 존재



강원도 날씨는 종잡을 수 없었다. 서울에서는 봄비가 내렸는데 버스가 경기도에서 강원도 도계를 넘어 서자 갑자기 눈발이 흠날렸다.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였다. 해암은 비랑을 끌어 앉고 차창 밖에 눈을 주었다. 비포장도로가 금세 흰 눈으로 덮였다. 조개껍질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는 산촌의 초가들도 하얗게 변했다. 비포장도로를 날뛴듯 달려던 버스가 멈추었다. 사십대 초반의 한 스님이 손을 들고 있었다.

해암은 그 스님을 보자 반가워 옆자리를 권했다. "스님, 뛰는 뒷자리보다는 이 자리가 편합니다." 버스에 올라탄 스님이 합장하며 옆자리에 앉았다. "젊은 스님은 어디까지 가는 길이요?" "상원사 가는 길입니다."

"허허, 잘 됐소. 나도 상원사까지 간다오." 그제야 해암은 공손하게 자신의 범명을 뱉었다. 그러자 그 스님도 경상도 역양으로 자신을 보문(普門)이라고 소개했다. 보문은 한암의 상좌로 선산 도리사에서 오는 길이었다. 그때까지도 해암은 보문이 한암의 상좌인 줄 모르고 있었다.

"초행길 같소만." "스님, 그렇습니다. 오대산 상원사는 처음 가는 길입니다. 저는 해인사에서 오는 길입니다." "나는 선산 도리사에서 오는 길이요만 스님은 해인사에서 무슨 공부를 했소?"

보문이 대답 저울질하듯 묻자 해암은 자신 있게 말했다. "스님, 중 공부야 화두 드는 것 말고 또 있습니까. 효봉 조실스님 회상에서 화두 들고 공부했습니다." "하하하."

보문이 큰소리로 웃었다. 그러나 고지식한 해암은 보문이 왜 웃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스님, 왜 웃으십니까. 스님은 도리사에서 무슨 공부를 하셨길래 웃으십니까?"

"정량으로 가 통지계만 쳤소. 일하는 처사들이 만류했지만 '다 똑같습니다. 처사나 나나 뭐가 다릅니까' 하고 통지계만 쳤소."

해암은 보문의 갑갑한 얘기에 주눅이 들었다. 몸이 움츠러들었다. 차창에 성예를 끼게 하는 꽃샘추위 때문만은 아니었다. 보문에게서 서릿발 같은 정진의 힘이 느껴졌다. 속가에 아들 둘과 아내를 두고 서른이 지난 늦은 나이에 출가한 보문이지만 그의 정진력은 스승 한암이 '잡 좀 자면서 공부하라'고 걱정할 정도였던 것이다.

한암 스님 뵈러 오대산 가는 길에 보문 스님 만나

아들이는데 까다롭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스님께서는 공한 살림을 핑계 삼아 선방 수좌들을 내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디서 왔느냐, 은사가 누구냐고 묻지도 않아요. 스님 앞에서 공부하러 왔다고 말하면 그것으로 끝이지요." 두 사람은 진부에서 내려 상원사까지 눈길을 함께 걸었다. 다행히 눈발은 그치고 해가 떴다. 양달에 쌓여 있던 봄눈은 힘없이 녹았다. 오랜 겨울기름 끝이러는 녹은 물을 머금은 눈발은 촉촉해졌다. 산중의 야지랑이는 물오른 가지나 어린 싹을 어루만지듯 어른거렸다.

"한암 조실스님께서는 선사이시면서도 열불도 하고 주력(呪力)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수좌들이 뒤에서 그렇게 수군대는 소리를 나도 들었지요. 하지만 사실과 달라요."

보문은 해암에게 자신의 은사 한암의 가풍을 자세하게 얘기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한암은 화두 들고 공부하는 것만 일로 삼은 선사였다. 다만 언제나 손에 염주를 쥐고 있어 수좌들 사이에 오해가 있었다. 글을 잘하는 분으로서 글 생각이 나는 것을 막는다고 염주를 들고 있다는 등, 화두가 잘 안되니까 염주를 돌리고 있다는 등,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주력을 한다는 등 말들이 많았던 것이다.

하루는 젊은 용명(龍鳴)이 한암에게 "노장님은 염주를 무엇 때문에 돌리니까, 염주 돌리며 화두하십니까" 하고 물을 적이 있었다. 그러자 한암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염주만 번쩍 들어 보일 뿐이었다.

반대로 인곡에게 밤을 인가한 용성은 염주를 손에 든 적이 없지만 간혹 관세음보살을 염했다. 용성



경허 "남산에 구름이 이니 북산에 비가 온다는 말이 무슨 소리인가" 한암 "창문 열고 앉으니 기와를 입힌 담이 앞에 있습니다"

지켜왔다고 말했다.

한암(漢巖). 스님은 1876년 3월 27일 강원도 화천에서 삼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9세에 <사략>을 읽다가 우주 생기기 이전의 인물인 '반고씨(盤古氏) 이전에 누가 있었는가'라는 의문을 품었다. 이 의문은 출가로 이어졌다. 스님은 금강산으로 들어가 장안사 행통화상을 은사로 출가했다. 이후 신계사로 옮겨가 보조국사의 <수심결>을 펼쳐보다가 견치(見處)를 얻었다.

1899년 23세에 스님은 경북 청암사 수도암으로 내려가 경허 선사가 설하는 <금강경>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即見如來)'라는 구절에 이르러 오도했다. 안광이 열리며 우주의 실체가 보였다. 스님은 오도승을 올렸다.

다리 밑에 하늘이 있고 머리 위에 땅이 있네
본래 안팎이나 중간은 없는 것
절름발이가 걷고 소경이 보노니
북산은 말없이 남산을 마주하고 있네.
脚下青山頭上巒 本無內外亦中間
跛者能行盲者見 北山無語對南山

이후 한암은 스승 경허와 천연스님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어느 날 차를 마시던 중 경허가 중국 운문 선사의 법어를 빌려 물었다.

"남산에 구름이 이니 북산에 비가 온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창문을 열고 앉으니 기와를 입힌 담이 앞에 있습니다."

한암은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여여하게 드러난 실상을 대답했고, 그러자 경허는 여러 청중을 불러 말했다.

"중원(한암)의 공부가 개심(開心)을 넘어섰다." 스님은 해인사로 경허 선사와 함께 갔다가 천성산 내원사 조실로 추대됐다. 그러나 34세에 수행자들을 흘트리고 스님은 홀로 평북 우두암으로 가 보임했다. 보임하는 동안 부엌에서 불을 지피다가 또 오도의 경지를 확인하고는 계승으로 남겼다. 이때 스님은 찾아온 동산에게 사교를 가르쳤다.

스님은 다시 남행하면서 장안사, 건봉사 등을 거쳐 1923년부터 1925년까지 봉은사 조실로 있다가 50세에 '차라리 천고에 자취를 감추는 학이 필지인 정 삼촌(正三)에 말 잘하는 앵무새가 되지 않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오대산으로 들어와 버렸다.

보문은 한암의 행장을 한없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얘기했다. 해암은 한암의 행장을 듣는 것만으로도 신심이 났다. 진부에서 상원사까지의 산길을 지루하

지 않았다. 등에 짊어 둔을 만하면 차가운 응달의 산길이 나타나 뱀을 식혀주곤 했다. 두 사람은 월정사를 지나왔다. 허기가 쪼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한암을 천견하고 싶어하였다. 보문은 천천히 가는데 똑한 결기 같은 구석이 있어 성정이 해암과 비슷한 데도 있었다. 해암은 보문의 얘기를 듣는 동안 마음이 통하는 스님이구나 하고 새삼스럽게 느꼈다.

개울가 버들강아지 솟털이 오후의 햇살을 받아 빛났다. 보송보송한 솟털이 해암의 눈을 밝혀 주었다. 찬 개울물이 흐르는 땅에 뿌리를 박고 있는 나무지만 어린 눈은 우주를 향해 깨어나고 있었다. 결코 나약한 생명도 아니었다. 자신에게 주어진 묵묵한 오대산의 불을 부르는 전령이었다. 모름지기 수행자도 버들강아지가 불을 부르듯 세상의 행복을 눈앞에 펼쳐주는 존재가 돼야 한다고 해암은 생각했다. <계속>

“참선 수좌라도 어려울 때는 관세음보살을 염하라 관세음을 부르는 놈과 삼매에 든 놈이 둘이 아니야”

속리산 북천암 선방에서 자자일(自恣日)에 대중들이 한 마디씩 하다가 공양주를 보던 보문의 다음과 같은 질문은 대중들 사이에 두고두고 화제가 됐다.

'이곳은 보은군(報恩郡)인데, 그렇다면 불보살의 은혜와 시에 보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곳은 속리산(俗離山)인데, 그렇다면 세속을 벗어나 출가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곳은 법주사(法住寺)인데, 그렇다면 정법에 안주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해암은 버스가 대관령을 넘어서서야 보문이 한암의 상좌인 줄 알았다. 보문이 한암의 심부름으로 통도사 극락암에 주석한 경봉을 한두 번 만났다고 얘기했던 것이다. 동구불출 수행중인 한암은 결코 오대산을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도우(道友)인 경봉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상좌인 보문을 통도사 극락암으로 보내 예를 갖추었던 것이다. 그때마다 경봉은 공부 잘하는 보문에게 '왕대발에 왕대 난다'고 칭찬했다고 한다.

'사실은 한암 조실스님 회상에서 공부하고 싶어 방부 들어가는 길입니다.' "우리 스님께서는 거절하는 법이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오." "전국 어느 절 선방이나 살림이 궁핍해 사람을 받

은 수좌들에게 "내가 간도를 여러 번 왕래했지만 무사히 다녔다. 국경을 넘으면서 불안할 때면 관세음보살을 염한 덕분이다"고 말하며 "참선 수좌라도 어려울 때는 관세음보살을 염하도록 하라"고 당부했던 것이다.

용명은 그러한 용성에게도 대꾸했다. "노스님, 스님이 삼매 중에 계시면 일체 재단이 침입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까. 염불한다는 것은 밖으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용명은 선사야 어찌 염불한다는 것일까 하고 이해하지 못했다. 선이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이에 용성이 대답했다.

"아, 너희들이 아직 모르는구나. 관세음을 부르는 놈과 삼매에 든 놈이 둘이 아니야. 둘이 아니지만 힘은 두 가지가 나타나느니라."

"둘이 아니고 하나라면 뭐 부를 필요가 있습니까. 화두나 할 것이지요."

"관세음보살을 많이 부르다 보면 이해할 때가 있을 것이다. 관음묘지력(觀音妙智力)이 능구세간교(能救世間苦) 하였으니라."

보문은 스승 한암이 9세에 중국 역사서 <사략(史略)>을 읽었을 정도로 한문에 능했으므로 출가 후 <금강경요가해>와 <보조법어>를 현도, 편집해 간행한 적도 있지만 오직 화두를 든 선사로서 오대산을

공부하다 죽어라

조계종 제10대 종정 해암 대중사의 선기가 살아 있는 수행 도량 원당암에서 '성불'의 길을 닦아 보십시오. 재가자 선수행의 중심도량 원당암은 영기단에 만년위패를 모심으로써 생사가 돌 아닌 도리 속에서 열반정정을 이루는 수승한 원력의 도량입니다.

대도를 배우려면 불을 비벼 내듯하여 연기가 나더라도 쉬지않고 말지어다.
불꽃이 나타나는 그때가 되어야만 비로소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네.
- 해암대중사 법어

정진안내

- 철야 용맹정진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 7일 철야 용맹정진 여름 : 음력 7월 1일 ~ 8일
겨울 : 음력 12월 1일 ~ 8일
- 동안거결제 음력 10월 15일 ~ 1월 15일
- 산철결제 음력 2월 1일 ~ 3월 29일
- 하안거결제 음력 4월 15일 ~ 7월 15일
- 산철결제 음력 8월 1일 ~ 9월 30일

▪ 만년위패봉안대불사 합동천도재
매년 설날, 중앙절(음력 9월 9일), 백중, 추석, 매월 음력 15일(아미타재일)

해인사 원당암 | 경남 함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전화 055)932-7308 / 팩스 055)931-7515
www.wondangam.org